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
일어판 gpnews.org/japanese
중어판 gpnews.org/chinese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12. 1 ~ 2024. 12. 21 제309호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 컨퍼런스’ ... 12월 5일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위대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ONE DAY) 기도 컨퍼런스’가 2024년 12월 5일 성남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 글로리홀에서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2011년부터 다시복음앞에 대회를 주관한 복음기도동맹(이하 복기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Great Saint! Great Church!)’를 주제로 진행되며, 전 호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의 오성광 목사, 복음가득한교회 조성욱 목사, 선교적 교회공동체 웨이처치의 송준기 목사, 로그미션(복음의빛선교회)의 김용의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복기동 사무국 측은 “교회의 모습은 화려한 세속 앞에

흔들리고 무력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것도 자랑할 것 없는 한 사람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위대한 성도라 칭하여 주신다.”며 “이번 집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교회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기동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예수교회 회복 선언문’을 채택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자 시작과 끝, 전부라며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복음과 말씀에 헌신하고 성경에 나타난 원형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선언문은 또 “교회의 잘못과 죄악, 이상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경험과 전통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를 회복해야 할 것”

을 촉구하게 된다.

복기동은 이번 컨퍼런스를 앞두고 중보기도국을 운영, 집회 한 달 전부터 중보기도 편지를 작성해 매주 1회 제공하고 있다. 중보기도 편지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의 회복에 대해, 컨퍼런스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예수교회 회복’인 만큼 주제에 맞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된다. 문화예술 선교단체 블루피쉬컴퍼니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제로 한 뮤지컬 삼입곡을, 헤브론원형학교 학생과 선생님으로 구성된 약 70명 규모의 합창단이 교회 회복을 주제로 특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박계환 선교사 (블루피쉬컴퍼니)

“예술작품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캣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미녀와 야수>, <점프> 등 국내 유명 작품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30년 간 활약한 배우 박계환. 지금은 화려한 무대를

뒤로하고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문화예술 선교사로서 드라마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엔 영화 감독으로 데뷔,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8회 기독교국제영화제에서 ‘올드 셀프 (Old Self)’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박계환 선교사의 지난 삶에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92)

믿음은 행동을 지배한다

‘믿음’은 자칫 오해를 불러오기 쉬운 개념이다. 때문에 먼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믿음, 신뢰, 확신, 의지함 등은 종종 같은 뜻으로 쓰인다.

진실한 믿음은 각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은 그 의자가 몸을 지탱해 주리라는 객관적 사실 때문이다. 그 사실이 확인된 의자는 신뢰를 받는다. 그 의자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나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의자가 튼튼한지를 잠깐 살펴보고, 견고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을 때 의자에 앉는다. 이와 같이 아브람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그에게 사실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문제는 믿음의 분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 아브람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뿌리를 내렸다.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관해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설 때 갖게 되는 것이다. 동의의 수준은 아직 진정한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

믿음의 수준을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두 친구가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

다. “저 청룡열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니?”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응, 믿고말고!” 그러자 먼저 물었던 친구가 제언했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타보자.” 이때 만일 다른 친구가 자기는 타지 않겠노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는 그 사실에 대해 단지 생각으로 동의만 할 뿐이지, 마음 속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믿음은 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은 믿음이 바로 행동을 지배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브람의 믿음은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차원 이상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자신의 목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숨과 명성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아브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날 수 있었다. 아브람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을 믿었다. 아브람의 순종은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내보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 결코 아니었다. 아브람의 순종은 그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 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많은 나라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래’의 이름 역시 ‘많은 나라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보여 주시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전쟁 속 레바논, 소닉 폭탄과 미사일 소리 간극 터득하는 아이들



▲ 레바논 한 마을의 공터에서 만난 소녀들. 제공: WMM

레바논 한 마을의 공터에 원형 식탁이 만들어졌다. 부서진 돌들로 만들어진 식탁과 의자가 꽤 그럴싸하다.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드러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집중적으로 공습하면서 9만여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또한 군사적 확전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레바논 사람들은 죽음과 파괴가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다. 일상이 되어버린 전쟁으로 아이들은 밖에 나가 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배우는 대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닉 폭탄과 다른 미사일 소리의 차이를 배워가고 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일들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명한 구원의 빛 가운데서 레바논의 다음세대가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편 36:9)

[GPNEWS]

우크라이나 교회,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 섬기며 성장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에브게니 스칸체프 목사는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에서 음식을 나누고 세탁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 영역을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스칸체프 목사는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위의 다리를 파괴하면서 점령지에 갇히게 된 이후, 남은 교인 수십 명과 함께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 사역은 2023년 6월, 러시아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카호브카 댐 붕

괴와 이로 인한 홍수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교회 출석 성도는 3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북부 이르핀 성경교회의 세르게이 솔로허브 목사는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서 난민 지원과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지역은 러시아군에 의해 70%가 파괴됐다. 성경교회는 2022년 봄에 약 600명의 교인 중 약 3분의 1이 대피했지만, 현재 교회는 전쟁 전 교인 수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추가 방문자만 700명에 달한다. 목사는 교회의 성장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교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솔로허브 목사는 “우리는 사람들이 육체적,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섯 곳의 자원봉사 센터를 열었다. 또한 난민들을 위한 정기 모임을 시작해 그들이 음식과 옷을 받을 수 있으며 신앙의

주요 문제에 대해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했다.”면서 “또 다른 우선순위는 전쟁 미망인과 가족들에게 상담과 법적 조언을 포함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제일 빌호로드 드니스트로브스키 교회는 시설을 지원 센터로 전환해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인이 크게 늘었으며, 우크라이나 오순절 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75개의 새 교회를 세우며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2023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 약 3800만 명 중 정교회와 가톨릭 신자는 각각 약 61%와 11%를 차지하며, 개신교인은 2%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솔로허브와 같은 목회자들의 전쟁 대응 덕분에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멕시코, 토착민 권리 보호법 개정으로 기독교인 박해 위험 초래

멕시코에서 최근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기독교인 박해를 가져올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멕시코에서 지난 9월에 통과된 이 법안이 토착민 공동체가 지역 관습과 전통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통 의식과 축제(일부는 동물 희생 같은 관행을 포함)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도록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나님, 원주민의 전통에 참여할 수 없는 멕시코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소서.

독일 각 지역, “크리스마스 마켓서 ‘대마초’ 금지”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 연립정부가 최근 경제 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붕괴하면서, 독일 지역 당국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대마초 흡연을 잇달아 금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6일 전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는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헤센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대마초가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새 연방정부 구성에 따라 대마초가 다시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나님, 독일 곳곳에서 대마초가 금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의 영혼들이 마약에 취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韓 청년, 비혼 출산 긍정 인식 확산... 20대 42.8%, 10대 44.2%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 의무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산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중은 37.2%로, 2년 전(34.7%)보다 2.5%p 증가했다. 특히 10대(13~19세)는 44.2%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 42.8%, 30대 42.1%, 40대 41%, 50대 35.9%, 60세 이상 29.2% 순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고 비혼 출산을 추구하며 정육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GPNEWS]

지난해 유럽 35개국 반기독교 증오 범죄 2400여 건



지난해 유럽 35개국에서 2444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보고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 15일 전했다. 범죄 유형은 교회 기물 파손(62%), 기독교 유적지 모독(24%), 방화(10%), 협박(8%), 물리적 폭력(7%) 순이었다. 스페인의 사제 살해, 폴란드 성체 행렬 공격, 영국 개종자 살인 미수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약 100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영국은 약 7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직장과 공공생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35세 이하 기독교인의 36%만이 직장에서 기독교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2년 135건에서 2023년 277건으로 105% 증가하며 세 번째로 높은 사건 수를 기록했다.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관측소(OIDAC)는 직장에서의 차별, 신념 표현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유럽연합(EU)이 반기독교 증오 범죄를 다룰 조경관 신설을 촉구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국제 사회, 폐해 많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폐지 촉구하다

UNHRC,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강제 개종 및 결혼 제도 등 개선 및 폐지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파키스탄에서 허위 신성모독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파키스탄의 가혹한 신성모독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UNHRC는 허위 신성모독 혐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인권규약(ICCR)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회원국 4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이 같은 권고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투자 감소나 외교적 비판, 제재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다.

UNHRC는 지난 11월 7일 발표한 파키스탄에 대한 두 번째 정기 보고서에서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규정한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들은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HRC는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된 사람들의 증가, 허위 고소에 근거한 신성모독 사건의 증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 법적인 절차나 사법 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려는 자경단식 정의 구현, 특히 사이버 범죄법 하에서 온라인 신성모독 혐의로 젊은이들이 함정에 빠지는 혐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법 사용 중단 요구

UNHRC는 2016년 제정된 전자범죄예방법(PECA)과 같은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온라인 신성모독 혐의를 기소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범죄법과 관련한 신성모독법 남용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촉구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UNHRC는 “형사 명예훼손법, 신성모독법, 반역법, 반테러법 그리

고 최근에 통과된 다른 법률들이 언론인, 인권 옹호자,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NHRC는 파키스탄 정부에 신성모독 혐의나 종교적 범죄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금 상태에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특히 성폭력 및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장기간 독방에 갇히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0년 9월, 기독교인 여성 사구프타 키란(40)은 소셜 미디어(SNS) 왓츠앱에서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2021년 7월 29일 체포됐으며, 신성모독법 제295-C조항에 따라 기소돼 2024년 9월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Unsplash의 Junaid Nawaz / R.D. Smith / Abdul Basit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2021년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에서 5200명 이상의 여성이 성폭행을 신고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는 2010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폭력적 군중 사태

UNHRC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 그리고 그들의 예배 장소 파괴가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를 지적했다. 이사회는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 부족을 지적하며, 파키스탄이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NHRC는 특히 “파키스탄은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사람들, 특히 경찰 구금이나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공격을 조사하며(군중 폭행 및 살인을 포함), 모든 가해자를 기소, 유죄 판결,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신성모독 혐의를 근거로 폭력이나 허위 혐의를 제기하는 모든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적절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9월, 발루치스탄 주 퀘타의 칸톤먼트 경찰서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 중이던 무

슬림 남성 압둘 알리가 경찰관 사드 칸 사르하디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다. 또 2023년 8월에는 펀자브주 자란왈라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 형제가 신성모독 혐의를 받자, 수천 명의 무슬림 폭도들이 25개 이상의 교회와 85채의 기독교인 가옥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강제 개종 및 결혼

UNHRC는 특히 종교적 소수자 여성과 소녀들을 강제 개종 및 강



Unsplash의 Ali Khokhar

제 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18세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회는 “종교적 소수자 소녀들을 납치해 폭력 위협 하에 결혼 및 개종을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간, 인신매매, 기타 성폭력에 노출되는 사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

언론 자유 및 표현의 억압

UNHRC는 2021년 제정된 언론인 및 미디어 전문가 보호법의 채택을 언급하면서도 언론인 및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강제 실종, 고문, 살해, 위협, 괴롭힘 사례가 자주 보고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파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며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31일, 파키스탄 비영리 단체 프리덤네트워크는 지난 2년간 11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3년 5월, 야권 성향의 언론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BOL TV 소속 저명 언론인 사미 아브라힘은 괴한들에 의해 납치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또한 인터넷 차단과 SNS 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빈번한 사례에도 우려를 표하며, 언론인 및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형사법 및 반테러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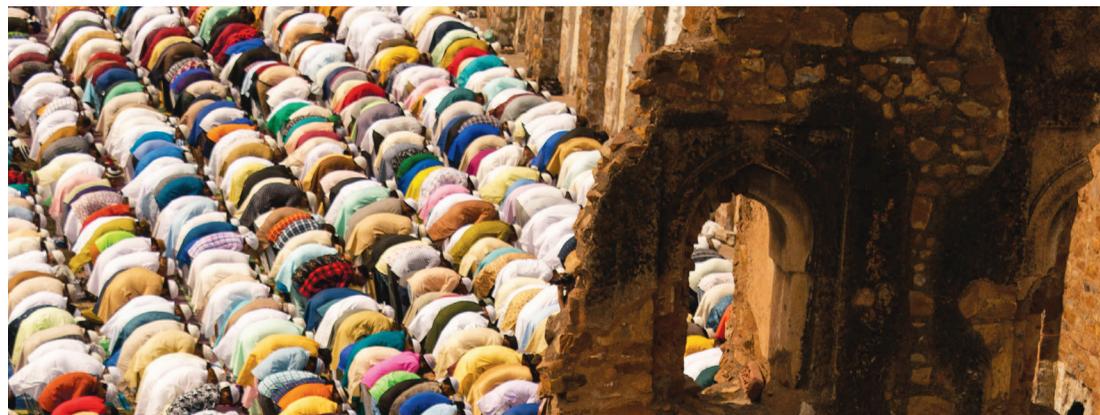
파키스탄 정부는 시위와 같은 사회적 불안을 이유로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유튜브, 텔레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바 있다.

사형제와 종교적 박해

UNHRC는 30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파키스탄 법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기에는 신성모독과 같은 비폭력 범죄도 포함된다. ICCPR에 따르면, 사형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돼야 하는데, 파키스탄은 신성모독 혐의에도 사형이 적용돼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2024년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독교박해국가순위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위를 기록했다.

[GPNEWS]



Unsplash의 Salman Preeom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문화예술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박계환 선교사 (블루피쉬컴퍼니)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변화를 받고 문화예술 선교사로 16년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은혜받은 자, 박계환 형제입니다. 지금은 블루피쉬컴퍼니(Blue Fish Company)라는 단체를 섬기면서 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블루피쉬컴퍼니는 어떤 단체인가요?

“블루피쉬컴퍼니의 의미는 유튜브 브 채널 복음기도미디어에 게시된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19화에 담겨 있습니다. 사역으로 갔던 태평양의 한 섬에서 해변을 거닐다 파란 코발트색으로 반짝거리는 물고기를 보게 됐어요. 작은 물고기였는데, 너무 예뻐서 병에 담아 숙소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숙소에서 보니 그냥 송사리였어요. 다시 바닷물 속에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다시 파란색이 된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바닷물 안에서 태양 빛을 받아야만 원래 원형의 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듯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문화예술 선교단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음의 빛 비추는 블루피쉬컴퍼니

-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문화예술 선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임을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전통적인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실상 저라는 존재 속에 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사람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더 의롭게 살면서, 주님이 허락해주신 배우라는 영역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2009년에 복음학교에 참여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 주셨어요. 그때 주님께 저를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저는 선교사라 하면 어디 외딴섬에 가서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순교하는 선교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

혜가 너무 크다 보니 아멘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문화예술 영역으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사랑이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어서 지금까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을 위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영화 ‘제작’의 ‘제’자도 모르고 카메라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저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5~47절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

① 공연 예매 중인 박계환·고상미 선교사 부부 ②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녹음현장 ③ 영화 ‘올드 셀프’ 촬영 현장. 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박계환 선교사 제공

- 블루피쉬컴퍼니의 사역 목표가 있다면요?

“저희 단체는 두 가지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방송, 공연 등 문화예술 영역의 종사자들이 복음을 만나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고 또 그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로 열방의 땅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블루피쉬컴퍼니 로고를 만들 때 물고기 모양 아래에 문구를 써야 하는데 ‘Stage’ 하나만 쓰기에는 뭔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Stage & Film’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영화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블루피쉬컴퍼니가 시작된 지 6년 후에 정말 영화를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 이번 2024년 기독교국제영화제에 출품한 작품이 ‘올드 셀프’죠?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복음기도미디어와 협력해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오디오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개인 전도나 교회 등에서 활용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제작해왔어요. 또 공연이나 영화로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영화를 제작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생각났던 소재가 ‘올드 셀프’였어요.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에 관해, 십자가에 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정작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들

의 여호와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은 창과 칼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선포였어요. 저 역시 오디오 드라마 대본은 작성해봤지만 영화 시나리오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동역하고 있던 ‘다윗의 열쇠(KOD)’라는 선교단체의 청년 미디어팀 선교사님들과 제 마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KOD와 연합하고 있던 영상 전문가 한 분이 나타나셔서 영화 제작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촬영 장비부터 조명, 음향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정말 기적같이 5회 차 정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촬영하는 내내 비가 왔는데, 영화에는 해가 짙게 떠 있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할 때 해를 뜨게 해주시는 등 간증이 많아요.”

처음 제작한 단편 영화로 기독교국제영화제 수상

- 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군요. 영화에 복음을 어떻게 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복음을 맛닥뜨렸을 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죄를 생각할 때 나는 괜찮는데 죄가 내 몸에 붙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



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에서 의미하는 죄는 그게 아니었어요. 생명이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 자체, 숨쉬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죄 곧 나, 나 곧 죄’라는 개념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울고 웃고 별짓 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제목의 ‘올드 셀프’가 그 죽어야 하는 옛 자아군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기까지 선교사님도 복음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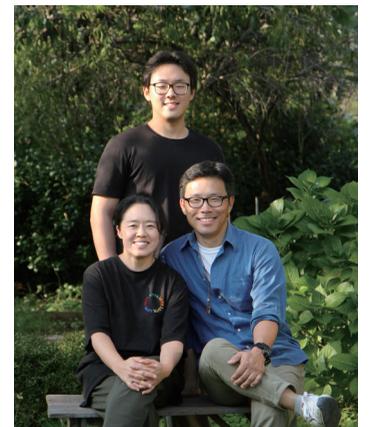
“부끄러운 얘기지만 배우로 생활할 당시 그때 저를 부르던 말이 ‘대학로의 작은 예수’였어요.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수입이든 십일조, 감사헌금을 떼어먹어 본 적 없고, 스스로 악심을 품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또 해외에 공연하러 가더라도 주일 성수를 위해 물어 물어 위치를 파악하고 모르는 외국어와 지하철 칸수를 외워가면서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스스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등 나름 열심이었어요. 또 배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대충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었어요. ‘인간으로 사는 이상 이걸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정신 통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점점 주님 앞에서 계속 긴장 속에 살다가 주님이 모든 것을 허부셨어요. 저를 십자가로 초대해주셔서 밝히 알게 하신 것은 저의 죄 된 존재와 생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제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했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 존재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 존재와 생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 영역의 통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무언가 선한 것,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문화예술 영역의 통

로인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저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랐는데 돌아보면 당시에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와 생명이 바뀌고 생명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면서, 저의 어둠함과 상관없이 복음이 흘러가 생명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건 분명 엄청난 차이예요. 결국 핵심은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보는 것이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 같은 그리스도인 배우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 기독교인으로 문화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요.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복음기도신문

“선한 영향력이란 표현을 놓고 조금만 생각해볼게요. 그 영향력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주님일까요? 자칫 주님보다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겠죠. 또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복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복음이 너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믿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문화와 예술이라는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고 퀄리티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선언하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실제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거친 십자가였어요.”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요르단에 부는 난민 청소년 축구 열풍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단체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점령 세력 간의 전투를 넘어 2000km나 떨어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미사일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자국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4월 이란은 수백 기의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이라는 목표물에 도달하기에 앞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을 먼저 지나게 된다. 지난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 당시 요르단 상공에서 격추된 미사일 파편들이 도심에 떨어져 수 명의 사상자가 요르단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전쟁과 폭력으로 찢긴 주변국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긴장하는 요르단에서, 난민 청소년들 사이에 큰 기쁨을 주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간 세상의 주변인으로 살던 난민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에너지를 뽐내며 기쁨과 탄식의 소리로 운동장을 채운 축구대회가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개최된 것이다. 요르단에는 금세기 최대 재앙

으로 불리는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정부 추산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UNHCR에 등록된 난민은 67만 명)이 있다. 이런 요르단에 2023년 가을부터 <“더 호프” 요르단 남녀 청소년 축구 챔피언십(The Hope” Jordan Youth Football Championship for Men & Women)>이라는 이름으로, 요르단



▲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며 축구 시합에 참여한 청소년 선수들. 김시은은 제공

에 거주하는 난민과 한국 및 북미 등지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가 한국인들 중심으로 개설됐다. 이 대회를 시작한 무사(48) 씨는 본인의 자녀와 동료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축

구를 하던 중, 난민 청소년들을 섬기던 봉사자로부터 자기 팀 아이들과 축구 시합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작년에 연달아 받게 됐다. 이 시대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 자녀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축구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라는 마음의 감동을 당시 그 사건을 통해 받았다고 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구대회 시작을 선포하



고 보니 막상 운영이나 재정, 홍보 등 모든 면에서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써 가 보자는 마음으로 첫 대회를 작년에 시작했다. 당시 한국 선교사 자녀(MK) 팀, 국제 MK팀, 이라크 난민 팀, 각각 거주 지역이 다른 시리아 난민 2개 팀, 그리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노동자 자녀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대회를 개최했고 마프락에서 온 난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뻐하던 당시 난민 청소년들의 얼굴을 무사 씨는 잊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들에게 그런 환호의 순간이 언제 있었던가.

어느덧 세 번째가 된 본대회의 의미를, 난민 아이들에게 세계를 경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무사 씨는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땅의 난민과 타국 출신 노동자들은 이 축구대회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적의 자기 또래들을 만나 축구 실력을 펼치고 함께 땀 흘리는 가운데 그동안 몰랐던 작은 신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The Hope>라는 대회 이름과 관련하여 무사 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다. 그분은 모든 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와 자신의 대속적 죽



김시은은 제공

음과 부활로 그 꿈을 이루어내셨듯, 무사 씨 역시 축구를 통해 모든 열망의 구원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고 싶다고 한다. 이 대회가 요르단 땅에서 계속되어 난민 자녀들과 MK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꿈을 축구공에 담아 무사 씨는 하늘로 매일 쏘아 올린다. [GPNEWS]

요르단=김시은은 객원 기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여!

죄 사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없다. 이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너무 슬퍼진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기쁨’이라 부르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이다. 만약 그 사람이 실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있다면, 자기가 죄 사람을 받지 못하고 죄인의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자기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여! 곰곰이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던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불행이 곧 당신에게 닥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제가 불행하다고요? 천만에요!”라고 말하며 당신의 으리으리한 저택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조만간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남겨두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GPNEWS]

‘내 주께 굴복하라’ (C.H. 스펀전)에서 발췌

독자편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복음기도신문을 전한다

오늘도 부천역 광장에서 전도팀들과 함께 복음기도신문을 들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며 복음기도신문을 건네면 많은 이들은 손사래를 친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휙 돌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저만큼 돌아서 길을 간다.

복음기도신문을 건네면 따가운 눈초리로 “어느 교회냐?”고 “이단은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의아해한다. 보통은 우리 교회로 가자고 전도한 터라 교회 이름을 이야기 안 하니 오히려 의심을 한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고 계시기에 기회만 되면 복음기도신문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 가끔은 500세대인 우리 아파트 집집마다 현관에 복음기도신문

을 배달한다. 길에서 건네주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집중해서 읽어보시라는 마음에서다.

한번은 부천역에서 신문을 나눠주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되돌아와서 내 손에 든 것이 신문밖에 없느냐고 물었다. 교회 전도팀들이 주는 사탕이나 스레기봉투, 행주 등에 익숙한 터라 다른 선물을 기대했는데 진리 되신 말씀만 글로 기록된 신문만 들고 있으니 황하니 가버리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시 106:8)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오직 구원임에도 우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부천역 앞에 대기하고 서 있는 택시 기사분들에게 복음기도신문을 드렸다. 창문을 내리고 받는 분들도 있지만 버리기 귀찮다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다. 무료

하게 손님이 오실 때까지 멍하게 있는 그 시간에 신문에 기록된 복된 소식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알아질텐데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때를 언든지 못 언든지 전하라 하셨다.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상황과 조건이 되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지난주 복음기도신문을 건네받은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해서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다. 잠시 얘기를 나누며 그래도 교회공동체가 필요하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함을 얘기했더니 “그럼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고 질문하기에 12월 5일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 컨퍼런스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분이 다시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어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교회로 하나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고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주님의 성실하심으



▲ 아파트 현관문에 놓여진 복음기도신문. 고병문 권사 제공

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깨어 선포하기를 기대한다. 마라나타. [GPNEWS] 고병문 권사(동원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12)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

천지가 뒤집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확정, 그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음탕한 창녀가 돼서 주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가던 바로 그때 드러났다. 그 순간 나를 위한 사랑을 결정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구원하는 길을 확정하셨다니 이보다 더한 사랑의 확정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거친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복음이 나를 왜 못 바꾸겠는가. 복음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복음의 대상인 우리가 한 번도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거나 집중한 적이 없이 부담되면 도망가고 미루며 복음을 피해 다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내 생명

“

아들을 나 대신 죽여 구원의 길을 확정하셨다니 이보다 더한 사랑의 확정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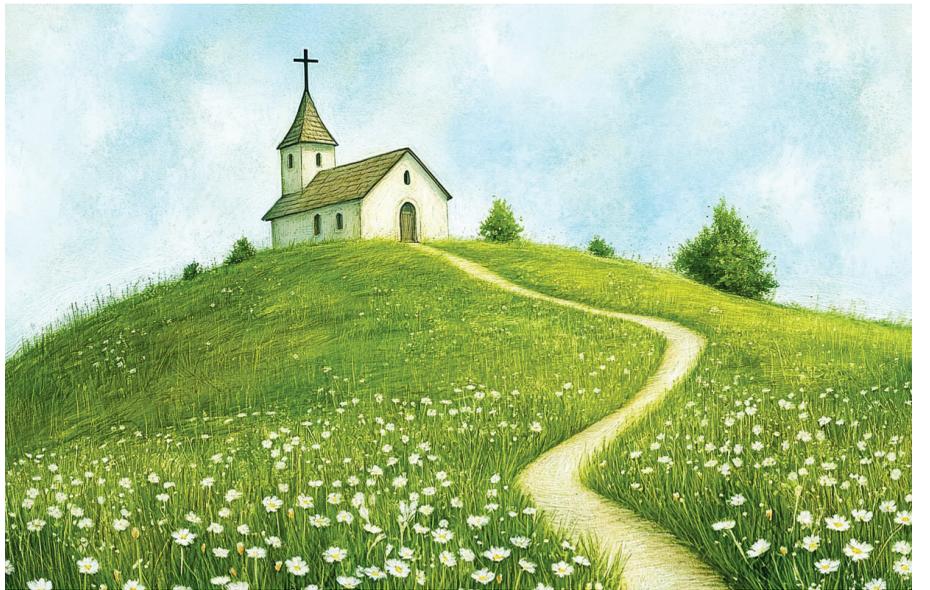
을 복음의 영광 안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평범하게 살다 죽을 수가 없다. 죽은 믿음은 있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복음에 전 생명과 존재를 걸어서 우리를 처음 복음 앞에 세우시던 그 날처럼 날마다 그 농도로 살아야 한

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비밀이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바로 지금이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멀리에 있지 않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변화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신학적인 동의를 믿음이 라고 말하지 말라. 진리 앞에 정면으로 생명 걸고 부딪히면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헌신케 하시고 새 생명 되신 주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길 원한다.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이게 해 주

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자. 복음 앞에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하며 확증하자.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진리가 결론되게 하시옵소서. (2018년 9월) <글>

[GN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Jakin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느헤미야 기도정보 순회선교단 복음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체성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행복하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재활용장 청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창 6:18)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육선교사로 헤브론원형학교에 올라온 지 벌써 1년하고 2개월이 되어간다.

나는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 관리부에서 선생님들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사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런 나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관리부에서 모든 시설관리와 재활용 분류와 정리, 그리고 청소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나는 청소하는 것을 그다지 잘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냄새 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일을 천한 일이라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맡은 일하기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 없이 책임과 의무로 하고 있었다. 그러는 걸 아시는지 주님은 한 학기 동안 한 학생과 선생님을 통해서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듣게 하셨다. “선생님은 헤브론의 생활이 행복하세요?” 계속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행복이란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 질문은 학기 내내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밤새 어질러진 재활용장을 정리하고 빗자루로 재활용장 바닥을 쓸면서 내가 하는 이 일도 주님



일러스트=고은선

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주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 그때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 특히 꼭 필요하고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이 되었다. 비로소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헤브론에 살게 됐다.

이제 나는 재활용장에서 청소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재활용장에서 박스,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폐기물, 고물, 스티로폼, 유리병 등등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분리하고 쌓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가끔 지체들이 물어본다. “어떻게

이렇게 박스를 잘 쌓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재활용장이 깨끗해요?” 나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가끔 재활용장을 정리할 때면 분리수거를 잘 못하거나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재활용장이 어지럽혀지기도 한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화가 나며, 짜증도 났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정성과 시간을 드려 주님의 몸 된 지체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 누군가가 또다시 나에게 “선생님은 헤브론의 생활이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주저없이 “네,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한 헤브론의 교육선교사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 된 헤브론의 지체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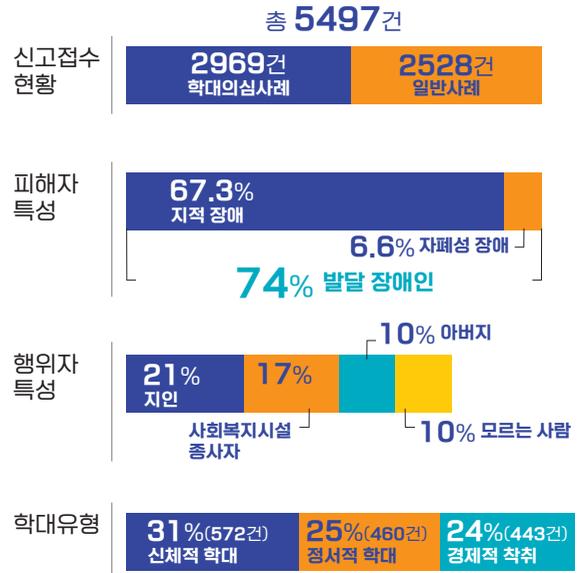
나도춘



장애인 학대 신고 매년 증가... 발달 장애인 피해 74%

장애인 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 장애인이 주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1월 8일 발표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모두 5497건이다.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 장애)에 대한 학대 피해 비율은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74%로 나타났으며, 학대 행위자는 지인(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7%), 아버지(10%), 모르는 사람(10%)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572건(31%), 정서적 학대 460건(25%), 경제적 착취 443건(24%) 순이었다.

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보건복지부)

기도 | 지인과 시설 종사자와 가족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장애인의 비참한 현장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한 생명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고 형제를 학대하는 이들을 꾸짖어 주시고 배후의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장애인들의 상한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이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G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10. 30 ~ 11. 20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혜령 김국남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민선홍 박경희 박신희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이동엽 이보희 이상연 이영선 이영욱 이은주 이인선(레마코) 이진희 장옥경 정금자 정범영 정영배 정요한 정호진 조평세 조형광 최근희 최점옥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마중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서현교회 선한목자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춘천샘물교회
풀뿌리산곡교회 헤브론원형학교
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윤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도시 주민들, 굶어 죽지 않으려 ‘농촌 이주’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도시 주민들이 생활난으로 인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시의 일부 주민

들은 홍원군, 리원군 등 인근 군(郡)으로 이주하고 있다. 매체 소식통은 도시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받아 농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이주한 홍원군이나 락원군은 바다가 있어 배들이 들어오면 그물에서 고기를 뜯어내거나 물고기를 종류별로 선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주민

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상인들로, 최근 환율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벌이가 줄어들면서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할 연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환경에 내몰리면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농촌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농

촌에서 시내로 나오면 나왔지 시내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세대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농촌으로 이주하면 자식들이 대대로 농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당장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최선의 방법이 농촌으로의 이주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 | 굶주림에 자식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농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절박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돌보아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북한 영혼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시어. [GPNEWS]



예수교회 회복 ONE DAY 기도컨퍼런스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GREAT SAINT! GREAT CHURCH!



J E S U S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초대합니다



오성광 목사
(전) 호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담임



조성욱 목사
복음가득한교회 담임



송준기 목사
웨이처치 담임



김용의 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집회 접수 QR코드

2024.12.05

10:00 - 21:00 목요일

선한목자교회

6층 글로리홀 (담임 김다위 목사)
문의 : 010-2349-4641

